

본보 대하기획 "제주잠녀" 취재팀, 전국지방신문협 취재부문 우수

등록 : 2006년 01월 16일 (월) 20:53:31
최종수정 : 년 월 일 (월)

고미 기자 ✉ webmaster@jemin.com

제민일보 대하기획 '제주 잠녀'취재팀(팀장 김형훈 사회부장)이 전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전신협) 2005 보도대상 취재부문 우수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신협은 16일 제주잠녀 취재팀을 포함, 취재와 편집 부문 최우수·우수상 수상자 5명(팀)을 선정, 발표했다.

김형훈 부장 외에 김대생 사진부 차장, 홍석준 사회부 차장대우, 고미 경제부 차장대우로 구성된 제주 잠녀 취재팀은 지난해 6월 구성, 도내는 물론 타 지역과 일본 등을 아우르는 폭넓은 취재와 자료 수집을 통해 제주 잠녀의 역사성과 사회문화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향토문화의 성가와 위상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제주잠녀 취재팀 등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9일 제주에서 열리는 전국지방신문협의회 2006년도 1차 사장단 간담회에서 열린다.

전국지방신문협의회는 지난 2002년 5월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에 가입돼 있는 전국의 지방일간지를 회원사로 출범, 2003년 11월 회원사 신문제작 분야의 창의성과 취재역량 제고를 위해 '보도대상'을 제정, 시상하고 있다.

전신협 2005 보도대상 심사는 정대철(한양대교수) 김창홍(인제대교수) 최경진(대구가톨릭대교수) 등 3명이 맡았다.